# Sternberg의 사랑의 삼각이론의 한국 부부에의 적용

## Intimacy, passion and commitment in marriage among Korean people: A test of the triangular theory of love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 수 최 혜 경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박사과정 강 진 경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강 사 신 수 진

Dep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Professor* : Choi, Hye Kyoung
*Ph.D. Candidate* : Kang, Jean Kyung
*Lecturer* : Shin, Soo Jin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redictions derived from Sternberg's triangular theory of love were tested in order to explain the love relationships in marriage among Korean people. We were first interested in whether the subjective love experiences of respondents could be characterized by three components: intimacy, passion and commitment. We then attempted to examine the time course of each component as the marital relationships continued. 1687 married men and women we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 including the love scale developed by researchers based on Sternberg's and other researchers' work.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ove experienced by Korean men and women in their marriage can be classified by 3 dimensions: intimacy, passion, and commitment. Second, intimacy is the most powerful indicator of love in marital

relationships, followed by passion and commitment. Third, each of the 3 dimensions of marital love showed a U-shaped pattern as the marriage continued. Fourth, commitment was more stable than the other 2 dimensions throughout the marriag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Sternberg's triangular theory of love is useful to explain the marital love among Korean people.

## Ⅰ. 서 론

현대인들에게 결혼은 가족과 가족의 결합보다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는 개인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인간관계로서 기능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사랑(love)이 결혼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부부간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탐색하는 것은, 이를 통해 미래의 가능한 부부관계의 역동성을 예측하며 아울러 한국인들의 결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같은 사랑에 기반을 둔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라 하더라도, 부부관계는 결혼이라는 제도적, 법적 계약으로 성사되며 일생을 두고 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결정과 책임을 근거로 시작되는 관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연인관계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사랑의 정의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사회문화적 구성물이기도 하며, 또한 한 개인 내에서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한다(Hatfield & Sprecher, 1986; Hazan & Shaver, 1987; Hendrick & Hendrick, 1986, 1989; Lee, 1977; Rubin, 1970; Sternberg, 1986). 따라서 부부관계에서의 사랑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연인관계와 구별되는 결혼을 통한 남녀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고 또한 현대 한국사회라는 역사적 시점과 문화적 공간에 따른 사랑의 특성과 동시에 부부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다른 모습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며,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최근 30년간 주로 서구에서 이루어져 왔고, 사랑에 대한 관점은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강진경, 1996 참고). 이들 중 Sternberg(1986)의 사랑의 삼각이론은 사랑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친밀감과 열정, 그리고 사적인 관계를 일생동안 유지하겠다는 결정과 책임감을 포괄하는 사랑의 세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특히 결정과 책임감의 요소는 결혼의 제도적, 법적 의미와 함께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혹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관습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Sternberg(1986)의 이론은 다른 학자들의 설명들과 비교해, 단순한 연인관계에서 더 나아가 부부관계에서의 사랑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국내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강진경, 최혜경, 1996; 김중술, 1994; 김활란, 1996; 박의순, 1997; 유영주 등, 1995; 이정덕 등, 1998; 이유숙, 1998; 정현숙 등, 1998).

그러나 이들 연구들 중 한국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Sternberg(1986)의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강진경, 최혜경, 1996; 김활란, 1996; 박의순, 1997; 이유숙, 1998). 국내에서 사랑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현 한국사회의 시대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사랑의 개념정의와 측정도구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랑의 개념과 결혼만족도, 결혼적응 등의 부부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다른 개념들(김미숙, 김명자, 1990; 서광희, 조병은, 1993; 유은희, 박성연, 1989; 이숙현, 1988; 이정연, 1987; 최규련, 1987)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종단연구가 어려운 연구 설계상의 제약으로 인해 부부관계에서 사랑의 다양성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Sternberg(1986)의 사랑의 삼각이론의 관점에서 현대 한국인들의 부부사

랑을 설명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즉 Sternberg(1986)가 제시한 친밀감, 열정, 결정/책임감의 사랑의 차원들이 한국 부부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랑의 특성들이 부부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 Ⅱ. 이론적 배경

### 1. Sternberg의 사랑의 삼각 이론

사랑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국외에서 이루어졌고, 연구 중 다수가 미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낭만적인 관계의 맥락(Branden, 1988; Driscoll & Lepetz, 1972; Liebowitz, 1983; Rubin, 1974)에서 연구되어져 왔다. 부부관계는 일반적인 이성관계와는 구별되게 결혼이라는 사회적, 법적 약속으로 이루어지며, 가장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로 일생을 두고 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결정과 책임을 근거로 시작되는 낭만적이면서도 제도적인 관계이다. 두 사람의 친밀감의 욕구에 따라 상호적인 보살핌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성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렇듯 미혼 이성간의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은 그 관계의 질과 역동성에 있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사랑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부부관계를 설명하는데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사랑에 대한 선행 이론 및 연구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강진경, 1996; 박의순, 1997을 참고).

사랑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 중 Sternberg(1986)는 사랑의 기본적 유형을 병렬식으로 분류하려는 기존의 연구들(Lee, 1973, 1977; Hatfield, 1988)과는 달리 사랑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사랑의 현상을 통합함으로써 사랑의 개념을 보다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 모델을 보여주었다. 그의 사랑의 삼각이론에 의하면 사랑은 친밀감(intimacy), 열정(passion), 결정(decision)/책임감(commitment)이라는 세 구성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친밀감이란 "사랑하는 관계에서 경험하는 가까움, 연결감, 유대감"(Sternberg, 1988a, p.120)을 의미하는 따뜻한 감정의 체험이고, 열정이란 "사랑하는 관계에서 낭만, 신체적 매력, 성적인 극치 등으로 이끄는 강렬한 욕망"(Sternberg, 1988a, p.120)의 뜨거움을 의미하는 구성요소이다. 그리고 결정/책임감은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는 결정"의 단기적 측면과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책임감"(Sternberg, 1988a, p.121)의 장기적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차가운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특히 마지막 요소인 결정/책임감은 부부관계의 제도적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는 사랑의 세 구성요소의 균형과 정도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사랑의 유형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사랑의 유형이 상이한 관계의 특성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Sternberg(1988a)의 사랑의 삼각이론에서는 사랑의 세 구성요소들은 각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는 과정을 시사한다. 즉 친밀감은 처음에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점차 느린 비율로 증가하고 마지막에는 감소하게 되며, 열정은 빠른 증가 후에 습관화가 나타나게 되며 그 후 출발점 이하로 떨어진 후 점차 회복된다고 하였다. 반면 책임감 요소는 일반적으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책임감의 수준이 점점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관계가 더 장기화되면 책임감의 수준은 대체로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Sternberg(1988a)는 세 요소의 변화기준은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언제부터 이 세 요소가 감소 또는 증가하기 시작하며, 어느 정도로 변화하게 되는지, 이후에 다시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 2. 사랑의 구성요소와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들

지금까지 사랑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았으나, 이러한 논의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본 연구들은 많지 않다. 특히 Sternberg(1986)의 사랑의 삼각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은 매우 드물다. Sternberg(1986)가 제작한 STLS(Sternberg's Triangular Love Scale)를 요인분석하여 사랑의 삼각이론을 검증하고자 한 Sternberg(1988b)와 Hendrick과 Hendrick(1989)은 이론에

서 제시된 것처럼 세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들이 한 요인으로 묶여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랑의 세 구성요소를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구성체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의 연구대상이 연령층이 다양하지 못한, 비교적 젊은 성인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STLS의 많은 문항(Sternberg(1988b)의 경우 36문항, Hendrick과 Hendrick(1989)은 45문항을 사용) 내용상 서로 중복되고, 문항간 상관이 매우 높다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Acker와 Davis (1992)는 여러 연구들(Hatfield & Sprecher, 1986; Rubin, 1970; Rusbult, 1983)에서 사용한 사랑척도들로부터 Sternberg(1986)의 세 구성요소의 개념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24 문항을 선택하여 사랑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를 20대에서 60대 이상의 포괄적인 연령층을 이루는 204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요인 분석한 결과, Sternberg(1986)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랑의 구성요소로서 책임감과 열정이 분리되어 나타났으나, 친밀감은 구별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cker와 Davis(1992)는 친밀감에 대한 모호한 개념정의와 응답자들의 사랑 관계에서 친밀감이 열정이나 책임감과 분리된 요인으로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Sternberg(1986)의 사랑의 삼각이론을 한국의 미혼 및 기혼의 남녀에게 적용한 연구들(강진경, 최혜경, 1996; 김활란, 1996; 박의순, 1997; 이유숙, 1998)은 요인분석을 통해 세 구성요소를 밝히기보다는 사랑의 삼각이론에 따라 사랑의 세 구성요소를 우선적으로 구분하고 이들 구성요소들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주된 관심을 두었다. 그러므로 Sternberg(1986)가 제시한 사랑의 세 구성요소가 한국의 부부관계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지의 여부를 밝혀 주지는 못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사랑이 변화하는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연구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Acker와 Davis(1992)는 그들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친밀감 수준이 높았으며, 미혼자 중에서는 교제기간이 길수록 친밀감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열정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미혼자의 교제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성에게서 열정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감은 연령과 교제기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고,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의 책임감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Acker와 Davis(1992)의 연구는 연구대상들의 연령의 범위는 넓은 반면(18세에서 68세로 평균연령 38.3, SD=9.8) 연구대상의 수가 적었고(204명),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랑의 변화에서 선형 패턴만을 가정하여 Sternberg(1986)가 제시한 비선형 패턴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Reedy, Birren과 Schaie(1981)는 Sternberg(1986)의 이론을 직접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랑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은 102쌍의 신혼기, 중년기, 노년기 부부들이 다양한 사랑의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년기 부부들은 다른 연령층의 부부들에 비해 정서적 안정감과 헌신이 높고 반면 성적 친밀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혼기 부부들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Munro와 Adams (1978)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열정적 사랑과 우애적 사랑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우애적 사랑은 전 가족생활주기를 통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열정적 사랑은 점차 감소하다가 자녀가 모두 분가한 노년기의 부부들에게서 오히려 결혼 초기보다 더 강도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Sternberg(1986)가 시사한 것처럼 사랑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며, 사랑의 구성요소들은 서로 다른 변화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이 횡단연구로서 연령효과(age effects)와 세대효과(cohort effects)를 엄밀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진다(Acker & Davis, 1992). 따라서 횡단연구설계에서 시간지표의 차이와 변화를 어느 정도 구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의 개인의 삶의 위치를 반영하는 성(gender)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Schaie, 1996).

사랑 역시 성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인이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의 성이 성역할 정체감이나 성역할 태도 등을 통해 친밀한 관계에 대한 기대나 대인행동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고해왔다(강진경, 최혜경, 1996; Grossman & Wood, 1993; Hatfield & Rapson, 1985; Peplau, Hill, & Rubin, 1993). 또한 교육수준이 사랑의 유형(강진경, 최혜경, 1996)이나 성생활에 대한 지각과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들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한남제, 1997; Gebhard, 1966; Kinsey et al., 1953; Rainwater, 1965), 가족의 수입 정도와 남편의 직업지위 역시 부부간 정서적 관계와 대체로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Scanzoni & Scanzoni, 1988). 따라서 사랑연구를 횡단 연구설계로 접근하는 경우 성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Sternberg(1986)의 사랑의 삼각이론을 토대로 한국 부부를 대상으로 사랑의 구성요소를 규명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랑의 변화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결과가 사랑의 삼각이론을 지지한다면, 한국 부부의 사랑은 친밀감, 열정, 책임감의 세 차원으로 구성될 것이며, 이 세 구성요소들은 부부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1995년 9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조사된 여러 연구의 자료들(강진경, 최혜경, 1996; 김활란, 1996; 박의순, 1997; 이유숙, 1998)을 통합한 2차 자료로서, 1687명의 기혼성인들을 포함한다. 연구대상자는 남성이 668명(39.6%), 여성이 1019명(60.4%)이고, 평균연령은 40.9(SD=11.3)세로 20세에서 75세까지의 폭넓은 연령범주를 보인다. 이들의 평균 결혼지속기간은 14.4(SD=11.8)년이다. 평균 교육연수는 13.6(SD=3.52)년이고,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202(SD=3.46)만원으로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체로 높다고 볼 수 있다. 결혼지속연수별(5년 단위) 성, 연령, 교육수준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측정도구는 기존의 연구들(Acker & Davis, 1992; Davis & Todd, 1985; Sternberg, 1986)이 사용한 사랑의 척도들을 기반으로 하여, 첫째, Sternberg(1986)의 친밀감, 열정, 책임감의 개념정의에 맞으며 부부관계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문항들을 선정하고, 둘째, 현대 한국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번안, 수정하였고, 셋째,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집된 사랑의 항목들을 첨가한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자세한 내용은 강진경, 1996을 참고). 특히 책임감

〈표 1〉 결혼지속연수별 인구통계학적 변인[1)]

| 결혼지속연수(년) | | ~5 | ~10 | ~15 | ~20 | ~25 | ~30 | 그 이상 | 합 계 |
|---|---|---|---|---|---|---|---|---|---|
| 성별 빈도(%) | 남 | 148(22.8) | 90(13.9) | 106(16.4) | 101(15.6) | 72(11.1) | 62(9.6) | 69(10.6) | 648(100) |
| | 여 | 363(36.3) | 142(14.2) | 92(9.2) | 134(13.4) | 111(11.8) | 69(6.9) | 90(9.0) | 1001(100) |
| | 합계 | 511(31.0) | 232(14.1) | 198(12.0) | 235(14.3) | 183(11.1) | 131(7.9) | 159(9.6) | 1649(100) |
| 연령평균 (SD) | | 29.21 (3.91) | 35.44 (3,67) | 39.43 (3.43) | 44.57 (3.88) | 49.44 (3.80) | 54.09 (3.92) | 61.92 (4.95) | 40.88 (11.30) |
| 교육수준 평균(SD) | | 15.05 (2.33) | 14.98 (2.42) | 13.76 (2.51) | 13.01 (3.00) | 13.57 (3.00) | 12.53 (3.77) | 9.02 (5.12) | 13.63 (3.52) |

1) 〈표 1〉에서는 결혼지속연수를 묻는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은 38명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합계에서 나온 응답자의 수와 본 연구의 총 연구대상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결정'에 관한 문항들은 본 조사 대상이 혼인계약이 이미 결정된 부부이므로 책임감 문항들로만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각 요인의 점수는 요인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문항점수의 총합을 문항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9.0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사랑의 구성요소는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요인 추출은 주축요인분석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으며, 사각회전(oblimin)방식으로 최종 요인구조를 구하였다. 요인의 수는 아이겐값과 전체분산율 및 스크리검사 등을 통해 결정하였다.

둘째,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랑의 구성요소의 변화패턴은 다변인변량분석(MANOVA: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을 통해 살펴보았다. MANOVA를 사용한 이유는 Sternberg(1986)의 사랑의 삼각이론에서 친밀감, 열정, 책임감은 서로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차원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는 개념이며 본 연구에서도 요인간 상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친밀감과 열정, 친밀감과 책임감, 열정과 책임감간 r= .63, .74, .53, p< .01), 종속변인간 공분산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두 지표인 연령과 결혼지속연수는 서로 차별화 되지 않는데(r=.95, p< .01), 본 연구의 대상이 기혼자들이고 일반적으로 초혼의 연령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차이가 나타나므로 개인과 가족의 발달상태를 함께 보여주는 결혼지속연수를 택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결혼지속연수는 발달 지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결혼지속연수는 상이한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MANOVA에서 결혼지속연수를 관심변인으로,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의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변인들은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Ⅳ. 연구결과

### 1. 사랑의 구성요소

한국인들의 부부간 사랑이 Sternberg(1986)가 제시한대로 친밀감, 열정, 책임감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랑척도의 문항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 요인이 추출되었다. 총 25문항 중 중복되거나 요인부하량이 0.4보다 낮은 문항을 제외한[2] 19개의 문항이 최종적으로 사용되었으며, 3 요인에 의해 전체 분산의 63%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추출된 요인의 명명은 요인부하값이 큰 변수를 중심으로 제 1요인(9문항)은 '친밀감', 제 2요인(6문항)은 '열정', 제 3요인(4문항)은 '책임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별 신뢰도로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값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 2. 결혼지속연수에 따른 사랑 구성요소의 변화

결혼지속연수에 따른 사랑의 구성요소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인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3〉 및 〈표 4〉와 같다.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결혼지속연수별 사랑의 전반적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결과 Wilk's Lambda=.969이며 이는 p<.0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결혼지속연수에 따라 사랑은 변화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결혼지속연수는 성 및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친밀감, 열정, 책임감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다〈표 4〉.

결혼지속연수의 주효과(F=2.660, p<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종속변인별 단변인변량분석 및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결혼지속연수의 각 5년 급간별 세 요인의 평균점수의 변화

2) 요인부하량이 어느 정도 커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보통 ±0.3 이상이면 유의하다고 보지만 보수적인 기준은 ±0.4 이상이다(정충영, 최이규, 1996)

3) 본 연구에서는 요인간 상관관계로 인하여 직교회전이 아닌 사각회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분산율의 값이 다소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2〉 사랑의 구성요소에 관한 요인분석

| 문 항 | 요인 1 $\alpha$ =.92 | 요인 2 $\alpha$ =.86 | 요인 3 $\alpha$ =.84 | $h^2$ |
|---|---|---|---|---|
| (친밀감) | | | | |
| 배우자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 | .79 | -.14 | .11 | .62 |
| 내 삶, 나의 모든 것을 배우자와 기꺼이 나누고 싶다. | .77 | -.04 | .09 | .67 |
| 내 배우자를 신뢰한다. | .76 | -.08 | .08 | .60 |
| 우리는 서로 잘 이해하고 존중한다. | .75 | .05 | -.11 | .50 |
| 배우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준다. | .71 | .09 | -.11 | .48 |
|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 .69 | .21 | .00 | .70 |
|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 .69 | .00 | .12 | .61 |
| 배우자가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돕겠다. | .63 | .01 | .13 | .54 |
|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진다. | .62 | .18 | .03 | .58 |
| (열정) | | | | |
| 배우자는 성적으로 매력적이다. | -.04 | .77 | -.02 | .70 |
| 배우자와 성관계를 많이 갖는다. | -.05 | .71 | -.03 | .67 |
| 배우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즐겁다. | .11 | .61 | .10 | .54 |
| 배우자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있다. | .08 | .60 | .11 | .51 |
| 배우자가 곁에 없을 때에도 생각한다. | .13 | .56 | .12 | .53 |
| 배우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 .13 | .56 | .10 | .51 |
| (책임감) | | | | |
|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결혼을 유지하겠다. | .04 | -.07 | .83 | .68 |
| 우리의 관계는 영원할 것이다. | .04 | .13 | .66 | .58 |
|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충실해야 한다. | -.01 | .05 | .65 | .45 |
| 남은 여생동안 내 배우자만을 사랑할 것이다. | .06 | .13 | .64 | .59 |
| Eigenvalues | 9.33 | 1.60 | 1.07 | |
| 누가변량비율(%) | 49 | 58 | 63 | |
| 요인간 상관계수 요인 1 (친밀감) | 1.00 | | | |
| 요인 2 (열 정) | .63** | 1.00 | | |
| 요인 3 (책임감) | .74** | .53** | 1.00 | |

p 〈 .05 * p 〈 .01 ** p 〈 .001 ***

〈표 3〉 결혼지속연수,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별 사랑에 대한 다변인변량분석 결과[4)]

| Effect | Wilks' Lambda | F | Hypothesis df | Error df |
|---|---|---|---|---|
| 결혼지속연수 | .969 | 2.660*** | 18 | 4296.866 |
| 성 | .982 | 9.072*** | 3 | 1519.000 |
| 교육수준 | .980 | 2.567** | 12 | 4019.188 |
| 소득수준 | .952 | 1.944*** | 39 | 4498.831 |

p 〈 .05 * p 〈 .01 ** p 〈 .001 ***

〈표 4〉 결혼지속연수,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별 사랑의 구성요소의 변화[4]

| | | 자승합 | 자유도 | 평균자승 | F |
|---|---|---|---|---|---|
| 결혼지속연수 | 친밀감 | 9.593 | 6 | 1.599 | 3.757** |
| | 열 정 | 12.109 | 6 | 2.018 | 4.032** |
| | 책임감 | 19.680 | 6 | 3.280 | 6.301*** |
| 성 | 친밀감 | 4.139 | 1 | 4.139 | 9.727** |
| | 열 정 | 11.275 | 1 | 11.275 | 22.523*** |
| | 책임감 | 9.618 | 1 | 9.618 | 18.475*** |
| 교육수준 | 친밀감 | 1.566 | 4 | .391 | .920 |
| | 열 정 | 2.790 | 4 | .698 | 1.394 |
| | 책임감 | 7.004 | 4 | 1.751 | 3.363** |
| 소득수준 | 친밀감 | 17.087 | 13 | 1.314 | 3.089*** |
| | 열 정 | 10.345 | 13 | .796 | 1.590 |
| | 책임감 | 14.794 | 13 | 1.138 | 2.186** |

p 〈 .05 * p 〈 .01 ** p 〈 .001 ***

〈표 5〉결혼지속연수별 사랑의 구성요소의 변화에 대한 사후검증(단변인변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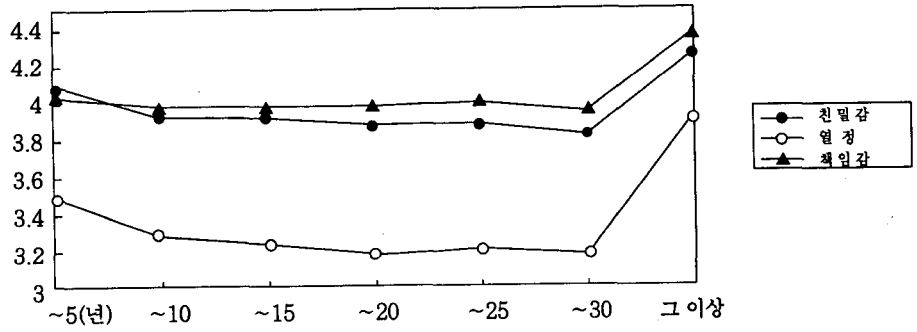
| 독립변수 | | 친 밀 감 | | | 열 정 | | | 책 임 감 | | |
|---|---|---|---|---|---|---|---|---|---|---|
| | | F | M | Duncan's | F | M | Duncan's | F | M | Duncan's |
| 결혼지속연수(년) | ~5 | 9.69*** | 4.08 | B | 23.22*** | 3.49 | B | 5.68*** | 4.04 | B |
| | ~10 | | 3.92 | C | | 3.27 | C | | 3.97 | B |
| | ~15 | | 3.91 | C | | 3.22 | C | | 3.96 | B |
| | ~20 | | 3.85 | C | | 3.17 | C | | 3.96 | B |
| | ~25 | | 3.86 | C | | 3.19 | C | | 3.97 | B |
| | ~30 | | 3.79 | C | | 3.16 | C | | 3.92 | B |
| | 그이상 | | 4.22 | A | | 3.87 | A | | 4.34 | A |

p 〈 .05 * p 〈 .01 ** p 〈 .001 ***

는 〈그림 1〉과 같다.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랑의 세 구성요소의 변화의 시기와 폭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표 5〉. 즉 친밀감과 열정은 변화의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결혼 후 5년까지는 비교적 점수가 높다가 5년 이후에서 30년까지 감소하고, 그 이후에는 결혼 후 5년까지의 점수보다 다소 더 증가하는 U자형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책임감은 결혼 후 30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그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혼지속연수는 5년 단위로 하여 7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졸, 중졸, 고졸, 고졸이상의 5집단으로, 소득수준은 14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1〉 결혼지속연수별 사랑의 세 구성요소의 변화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Sternberg(1986)의 사랑의 삼각이론을 적용하여 한국부부의 사랑을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즉, 사랑의 삼각이론에서 제시된 구성요소들이 한국부부들의 사랑관계에서도 나타나는지, 구성요소들이 밝혀진다면 그 요소들은 결혼기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는 Sternberg(1986)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 대상들의 사랑은 친밀감, 열정, 책임감의 세 요인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Sternberg (1986)의 세 구성요소로 한국부부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비교적 적절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STLS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들(Acker & Davis, 1992; Hendrick & Hendrick, 1989; Sternberg, 1988b)에서 요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 결국 "사랑이란 한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일 가능성이 있다는 논의도 있었지만(Hendrick & Hendrick, 1989, p. 791), 본 연구결과로, 적어도 한국의 기혼 남녀들에게는, 부부간의 사랑이 다차원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가 STLS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문항 수가 많음으로 인해 중복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19개의 간결한 문항을 사용함으로써 Acker와 Davis(1992)가 24문항으로 삼각이론을 검증하면서 제시한 상관계수보다 친밀감과 열정의 상관이 .81에서 .63으로, 친밀감과 책임감의 상관이 .82에서 .74로, 열정과 책임감이 .76에서 .53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연령대가 포괄적이면서 각 연령대에 포함되는 연구대상의 수도 많았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랑연구의 초기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실태에 맞는 사랑의 척도 개발과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는 작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둘째, 세 구성요소의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책임감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열정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낭만적인 사랑[5]이 중심이 되는 서구인들의 사랑의 개념과 달리(Dion & Dion, 1988; Hatfield & Sprecher, 1986),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부부는 결혼을 통한 제도적 관계로서의 의미와 중요성이 크고 낭만적 관계로서의 의미는 비교적 적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결혼지속연수에 따라 사랑의 세 구성요소는 대체로 U자형 패턴의 변화를 보였다. 이는 결혼만족도 등 부부관계의 다른 정서적 측면이 변화하는 패턴(Jorgensen, 1986; Spanier & Lewis, 1980)과 유사

5) 서구의 문화적 전통에서 낭만적 사랑과 관계되는 특성에는 도취감, 상대방에 대한 이상화,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생각이나 독점, 성적 매력, 생리적 흥분 등이 포함된다.

하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자녀출산 및 자녀양육의 요인, 결혼기간의 효과, 결혼 cohort나 출생 cohort 효과, 결혼생활의 지속에 따른 부부역할의 분리 정도 및 부부간의 불일치 정도로 설명하였으나 결과에 대한 연구들간 설명이 불일치하여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세 요인 모두 결혼지속기간 30년 이후에 속하는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밀감과 열정의 경우 결혼지속기간 5년 이내의 집단보다 30년 이후에 속하는 집단의 점수가 다소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패턴이 나타난 가능성은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결혼 초기의 부부들이 관계의 긍정적 차원과 함께 부정적인 차원을 모두 두드러지게 인식하고 경험하는 반면 노년기의 부부들은 부정적인 차원은 어느 정도 체념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긍정적인 차원들에 대한 지각이 선택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보는 설명이다(Gilford & Bangtson, 1979). 따라서 신혼기에 해당하는 결혼 5년 이내의 집단보다는 30년 이상 된 집단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을 수 있으며, 이는 Reedy, Birren과 Schaie(1981)의 연구 및 Munro와 Adams(1978)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둘째는 결혼지속연수가 30년 이상 된 부부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킬 때의 많은 일과 시간의 부담에서 다소 벗어나 부부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줄어들고, 오랜 기간의 적응기를 거쳐 현재까지 인생의 여정을 함께 잘 지내왔다는 자긍심과 함께 서로에 대한 신뢰와 따뜻한 정을 느끼며 남은 인생도 함께 할 것을 다짐하는, 즉 친밀감과 열정과 책임감이 모두 삶에 녹아 든 결혼지속기간의 효과가 반응에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손승영,1992).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횡단연구이고, 연구 대상자를 초혼이자 배우자가 있는 기혼 남녀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별거나 이혼을 한 부부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선택 효과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

넷째, 사랑의 세 구성요소는 미비하나마 서로 다른 시간의 틀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밀감과 열정은 결혼한 지 5년 이후에 감소하였다가 30년 이후 다시 회복되는 반면, 책임감은 비교적 안정적인 패턴을 보였다.[6] 이는 사랑의 세 구성요소의 강도와 균형의 정도가 부부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나 Sternberg(1986)가 이론적으로 제시한 대로 시간경과에 따른 세 구성요소의 변화에 있어서 시기, 방향성 등의 다양성은 지지되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간 지표를 고려하여 세 구성요소의 변화패턴을 추정해 보거나, 종단연구를 통해 연인 또는 부부의 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사랑의 구성요소들의 강도 및 균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하는지, 또한 변화의 메카니즘은 무엇인지를 탐색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종합적으로 Sternberg(1986)의 사랑의 삼각이론이 한국인들의 부부간 사랑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결혼기간의 경과에 따라 사랑의 구성요소들이 변화하며, 결혼 5년까지는 친밀감이 책임감보다 점수가 더 높았으나 이후 책임감 점수가 친밀감보다 더 높아진 점으로 볼 때, 결혼연수가 각기 다른 단계에 있는 부부들에게 있어서 부부관계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결혼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랑 구성요소의 양적 변화뿐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으로 다루었으나 부부간의 사랑에 있어서 나타나는 성차도 추후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서 결혼기간의 경과에 따른 부부간 사랑의 변화패턴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연령효과와 세대효과를 엄격히 분리하지는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의 문화적, 역사적 상황변인들을 통제함으로써 개인 및 가

6) 본 연구에서 결혼지속연수의 급간을 5년으로 하여 분석을 하기 전에 1년 단위 및 좀 더 세분화된 단위로도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각 분석의 전반적인 변화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5년 급간의 분석을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족의 발달을 나타내는 지표인 결혼지속연수에 따른 변화를 비교적 순수하게 추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2차 자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은 있으나, 포괄적인 연령대의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Sternberg(1986)의 사랑의 삼각이론이 한국의 부부들에게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강진경(1996).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성인기 사랑유형의 성차.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진경, 최혜경(1996).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과 성인기 사랑에서의 성차. 대한가정학회지, 34(4), 161-174.

김미숙, 김명자(1990). 도시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71-183.

김중술(1994). 사랑의 의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활란(1996). 중, 노년기 부부의 사랑과 자녀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의순(1997). 애착과정으로 본 한국부부의 사랑-對부모 애착, 부부애착과 부부사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광희, 조병은(1993). 농촌부부의 배우자 역할평가와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1(1), 97-120.

손승연(1992). 노부부의 가족구성 및 가족관계-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유영주, 서동인, 홍숙자, 전영자, 오윤자, 이인수(1995). 결혼과 가족. 서울:경희대학교 출판국.

유은희, 박성연(1989). 모자간의 애착과 모의 결혼관계에 따른 아들 부부의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7(2), 149-162.

이숙현(1988). 한국 근로자계층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2, 161-181.

이유숙(1998).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와 부부간의 사랑.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덕, 김경신, 문혜숙, 송현애, 김일명(1998). 결혼과 가족의 이해. 학지사.

이정연(1987). 주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수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5(1), 105-120.

정충영, 최이규(1996).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무역경영사.

정현숙, 최연실, 유계숙(1998). 결혼학 개론. 상명대학교 출판부.

최규련(1987). 한국 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남제(1997).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일지사.

Acker, M., & Davis, H.(1992). Intimacy, passion and commitment in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A test of the triangular theory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Relationships,* 9, 21-50.

Branden, N.(1988). A vision of romantic love. In R. J. Sternberg & M. L. Barnes (Eds.), *The psychology of love*(pp. 359-374). New Haven, CT:Yale University Press.

Davis, K. E., & Todd, M. J.(1985). Assessing friendship : Prototypes, paradigm cases and relationship assessment. In S. W. Duck & D. Perlman(Eds.), *Understanding personal relationship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pp. 17-34). Ber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Dion, K. L., & Dion K. K.(1988). Romantic love : Individual and cultural perspectives. In R. J. Sternberg & M. L. Barnes(Eds.), *The psychology of love*(PP.264-292). New Haven. CT:Yale University Press.

Driscoll, R., & Lepetz, M. E.(1972). Parental interference and romantic love : The Romeo and Juliet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1), 1-10.

Gebhard, P.(1966). Factors in marital orgasm. *Journal of Social Issues,* 22, 89-95.

Gilford, R., & Bengtson, V.L.(1979). Measuring marital satisfaction in three generations :

Positive and negative dimens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387-398.

Grossman, M., & Wood, W. (1993). Sex differences in intensity of emotional experience: A social role interpre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5), 1010-1022.

Hatfield, E.(1988). Passionate and companionate love. In R. J. Sternberg & M. L. Barnes(Eds.). *The psychology of love*(PP.191-217). New Haven. CT:Yale University Press.

Hatfield, E., & Rapson, R. L.(1985). Gender differences in love and intimacy: The fantasy vs. the reality. *Social Work and Love*, 27-40.

Hatfield, E., & Sprecher, S.(1986). Measuring passionate love in intimate relations. *Journal of Adolescence*, 9, 383-410.

Hazan, C., & Shaver, P.(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Hendrick, C., & Henarick, S.(1986). A theory and method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2), 392-402.

_____.(1989). Research on love: Does it measure 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5), 784-794.

Jorgensen, S. R.(1986). *Marriage and the family*. NY : Macmillan Publishing Co.

Kinsey, A. C., Pomeroy, W., Martin, C. E., & Gebhard, P. H.(1953).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female*. Philadelphia: Saunders.

Lee, J. A.(1973). *Colors of love*. Toronto: New Press.

_____.(1977). A typology of styles of lov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3-182.

Liebowitz, M. R.(1983).*The chemistry of love*. Boston: Little, Brown.

Munro, B., & Adams, G. R.(1978). Love American style: A test of role structure theory on changes in attitudes toward love. *Human Relations*, 31 (3), 215-228.

Peplau, L. A., Hill, C. T., & Rubin, Z.(1993). Sex role attitudes in dating and marriage: A 15-year follow-up of the Boston couples study. *Journal of Social Issues*, 49(3), 31-52.

Rainwater, L.(1965). Family design: Marital sexuality, family size, and contraception. Chicago: Aldine. In Scanzoni, L. D., & Scanzoni, J.(Ed.), *Men, women, and change -A sociology of marriage and family*(pp. 310-359). McGraw-Hill, Inc.

Reedy, M.N., Birren, J. E., & Schaie, K. W.(1981). Age and sex differences in satisfying love relationships across the adult life span. *Human Development*, 24, 52-66.

Rubin, Z.(1970). Measurement of romantic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265-273.

_____.(1974). From liking to loving: Patterns of attraction in dating relationships. In T. L. Huston(Ed.), *Foundations of interpersonal attraction*(pp. 383-402). New York: Academic.

Rusbult, C. E.(1983). A longitudinal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The development(and deterioration) of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heterosexual involv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01-117.

Scanzoni, L. D., & Scanzoni, J.(1988). *Men, women, and change-A sociology of marriage and family*, McGraw-Hill, Inc.

Schaie, K. W., & Wills, S. L.(1996). *Adult development and aging*.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Spanier, G. B., & R. Lewis.(1980). Marital quality: A review of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825-839.

Sternberg, R. J.(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119-135.

_____.(1988a).Triangulating love. In R. J. Sternberg

& M. L. Barnes(Eds.). *The psychology of love* (PP.119-138). New Haven. CT:Yale University Press.

_____.(1988b). *Construct validation of a triangular theory of love.* unpublished manuscript.